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 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총무팀 박민준 대리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박민준 대리가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있고,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민준 대리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팀에 큰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으로 발령받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하나?" 고심이 깊을 때 항상 옆에서 꼼꼼히 많을 걸 도와줬습니다.

박민준 대리는 회사 구석구석 작은 것도 허투루 보지 않고 세심하게 생각하고, 작은 부분까지 맡은 바 일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멋진 성과를 내보길 기대합니다.

박민준 대리~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김동춘>

산을 좋아하는 씩씩한 아내 김상향~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아! 가을~ 예쁜 단풍 구경과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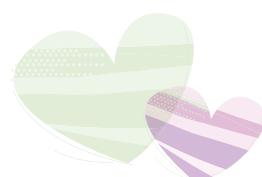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아내의 씩씩한 에너지를 함께하는 것은 남편인 저에게 큰 복입니다.

산행을 통해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고 성취감을 얻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씩씩한 아내, 산행을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김상향~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이정녕>

고객을 내 가게로 올 수 있게! 5만원이면 할수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더 크게!
늘어나는 고객, 커져가는 인지도 푸른신문에서 이뤄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053-572-6000